

이원재 제1차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강화하기로”

- 24일 우크라이나 제1부 의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논의 -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4일(목) 오후 13시 30분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 의장 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Oleksandr KORNIYENKO) 등 의원 4명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 먼저,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92년 외교관계를 수립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라고 언급했다.
- 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우크라이나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조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또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계속적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 이번 방한한 우크라이나 코르니옌코 제1부 의장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와 전쟁 중이나, 파괴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할 계획으로 있어, 한국 정부의 인프라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고 언급하며,
- “우크라이나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재건 분야별 한국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주거안정, 물류시스템 운영, 인프라구축(도로, 철도, 항공 등) 등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 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에 이원재 차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인프라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인프라 분야별(도로, 철도, 항공 등) 전문가 회의를 적극 참여 중이며,
 - 우크라이나측이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면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제도·시스템 정보,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적 협력 하겠다.” 고 밝혔다.
- 이원재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과거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는 외교부와 공조를 통해 업계 및 공기업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차관은 개인적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문 위인전 책을 우크라이나 제1부의장에게 선물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십과 애국심, 항전의를 통해 앞으로 전승과 평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2. 11. 24.

국토교통부 대변인